

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

9강 복음과 칭의 (롬 5:1~4)

롬 5~8장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히 보장된 것인지 그 절대 확실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쓰여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한한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1. 복음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

A. 죄인이 가진 딜레마가 무엇인가?

- 1) 죄의 세력 : 그는 죄의 세력에 묶여서 오직 마귀를 좇아 자기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 2) 죄의 형벌 : 그는 또한 죄의 형벌에도 묶여 있다. 죄를 짓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지만, 죄를 지은 기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다.

B. 칭의와 중생

칭의	중생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의 절대적 지배/소유권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 단지 죄인이 받을 영원한 형벌에서 그를 면제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가 죄의 권세를 이겨 범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전자가 칭의이고 후자가 중생이다.

2. 칭의는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신분에 변화를 준다.

“칭의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웨인그루덤)

중요한 것은 칭의가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3. 오직 ‘믿음으로’ : 칭의를 얻는데 아무 행위도 요구되지 않는다.

4. 점진적인 칭의, 부분적인 칭의는 없다(롬 8:1).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나 영원히 지속되는 완전한 선언이다.

칭의와 성화의 혼동 :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 어떤 특정한 문제에 매여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조금 나누어주시는 것이(전가) 아니라,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신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신자라면 그가 지금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범하고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존재다. 이것이 칭의의 복음이다.

5. 회심인가, 그리스도의 피인가? (롬 5:9; 요일 1:7; 출 12:13)

회개와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사람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다.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고 약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 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6.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롬 5:1~4)

A.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1).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겠는가? 무엇이 이 관계를 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리실 수 있겠는가?

B.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2).

칭의가 영화를 보장하는 까닭에 칭의를 입은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나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로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신자에게 있다(요일 3:2).

신자는 몸의 구속(롬 8:23) 곧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 날을(빌 3:21) 기다린다. 이 소망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에 대한 바람이다.

C.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3~4; 롬 8:28).

환난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최고의 방편이다. 신자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 환난이 나를 내 믿음을 더욱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해 줄 것을 아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7. 교훈과 적용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찾으려고 성경으로 들어가라. 풍성한 복음의 은혜와 그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자랄 것이다. 당신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